

제2외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이 근 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Lee, Kun-Nim. (2001). The problem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in the second foreign languages education in Korea.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4, 87-107.

The study examines the current problems with which the nation's second foreign languages(SFL) education today faces and suggests the recommendations for SFL policy. Assuming that SFL is at risk, the study warns that SFL policy has fail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FL and so gives less attention to factors that are require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FL. The main reasons for the crisis of SFL, the study says, seem to be the lack of giving efforts to improvement for SFL and the policy makers' failure to provide the SFL improvement plans (e.g., focusing on expanding the aspect of quantity with respect to the SFL without considering that of quality or making the SFL electives for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Based on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e study, a couple of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 The SFL should be offered as common courses for all and thus high school graduates take SFL subjects as the compulsory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for the SFL should be improved and developed. Particularly for the effective SFL, it should be free from the textbooks only classroom teaching-learning situation and lots of up-to-date curricular materials and laboratory apparatus should be developed .

I. 서

21세기는 세계화 추세가 가속화되어 국가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 간 교류에 있어서 기본 전제는 상호간에 의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현재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국가들 간의 집단 이해 체제 구축을 위한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상호 간에 긴밀한 접촉을 위해 '영어가 아닌'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한 의사 소통의 필요성 또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미 유럽 통합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권역, 중앙아시아 권역, 아프리카권역, 남미권역 등 지역 분권적 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마다 '지역 국제어'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2외국어 교과로 편성되어 있는 교과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7개 교과로 이 외국어들은 전세계 인구의 2분의 1에 가까운 30억 가량의 사람들이 모국어 혹은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 언어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제2외국어 교육은 전술한 바와 같은 실용적 필요성 이외에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그 가치를 찾아야 한다. 언어란 문화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문화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따라서 외국어를 다양화시켜 교육한다함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동시에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문화와 외국 문화를 비교, 분석하고 외국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여 폭 넓은 인간, 조화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제까지 실용성만을 강조하여온 영어 교육 일변도의 관점에서 국제화, 지역분권화,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영어를 포함한 여타 외국어 교육을 중요시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제2외국어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외국의 외국어 교육 현황을 우리의 외국어 교

육 현황과 비교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제2외국어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제2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제2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2외국어 교육의 외형적 확대, 대학 입학 시험에서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의 위치, 제2외국어 교과 간 선택 비율의 불균형, 외국어 교사들의 의사 소통 능력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2외국어 교육의 외형적 확대

중등 수준(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부터로 이 시기에는 독일어와 중국어 두 교과를 제2외국어 교과로 두었다. 이어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에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추가되었고,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에 일본어가 추가되어 총 5개 교과가 제4차(1981-1988), 제5차(1988-1992) 교육과정기까지 가르쳐졌다.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8)에 러시아어가 추가되었고, 제7차(1997-현재)에 아랍어가 추가되어 교육과정에 제2외국어 교과로 현재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총 7개 교과가 편제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시에 제2외국어 교육과 관련지어 한가지 특기할 것은 중학교 재량 활동 시간에 선택 교과로 제2외국어를 설치한 것이다.

이처럼 제2외국어는 광복 이후 1차 교육과정이 개발·공포된 시기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외형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과수에 있어서 처음 2개 교과에서 현재 7개 교과로 늘어난 것과, 최초로 제2외국어 교과를 중학교 수준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수·학습 현장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은 광복 이후 제2외국어 교육이 시작된 이래 소위 주요 교과라 불리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에 밀려 항상 뒷전에서 있으나 마나한 과목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5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제2외국어는 10단위로 필수 교과였으나 6차에는 제2외국어 교과가 I, II 두 과목으로 되면서 각각 6단위씩 총 12단위로 편성되어 외형상으로는 단위수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영어 과목과 함께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실제 단위수는 평균 8단위 정도로 축소되었다. 제7차에서 제2외국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국민 공통 교육 기간에 배우는 10개 과목에서 제외되고, 고등학교 2학년부턴 배우게되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제2외국어 I과 심화 선택 과목 제2외국어 II, 각각 6단위씩 배정되어 있다. 제2외국어 I, II 12단위인 것은 6차 때와 동일하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일반 선택 과목만 선택할 것으로 예측되어 6차보다 제2외국어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 기초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흔히 400시간으로 본다 고 하면 이에 비해 우리 나라 고등학생에게 배당되어 있는 시간은 제2외국어 I, II를 다 이수한다 해도 204시간에 불과해. 이와 같은 수업 시수로는 정상적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실제로 제2외국어 교육이 약화됨에 따라 교수·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이 어려우며 정식 교과로 도입된 이후로 국가 수준에서 제2외국어 질 제고의 문제는 한번도 정식으로 거론된 바 없었다.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표방하며 과목수를 늘리는 것으로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책으로 여겼으며 단 한번도 제2외국어 수업시수의 확대나 교수·학습 자료 개선에 관한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었다.

2. 대학 입학 시험에서의 위치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면서 외국어 영역에서는 영어만 평가를 하였고 제2외국어는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제2외국어 교육은 현장에서 자연히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99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

안 연구 위원회(1997년 4월)는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에서 세계화 일환으로서 기존의 영어 일변도의 외국어 교육에서 탈피하여 외국어 교육을 보다 다양화해야 하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외국어(영어) 영역의 시험과 더불어 필요한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제2외국어 시험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제안에 따라 1997년에 2001학년도부터 제2외국어를 대학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1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2외국어 영역의 평가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진정한 국제화·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으로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대만큼 교육의 정상화와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흥미를 유발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2외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타영역과는 달리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은 선택 시험으로 수험생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대학, 계열 또는 학과가 어디인지에 따라 지망하는 대학이나 계열, 학과에서 제2외국어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시험을 치르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2외국어 영역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1998년에는 2001학년도 입학생에게 제2외국어를 요구할 예정인 대학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180여개의 대학 가운데 73개 대학이 제2외국어 시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1학년도 시험에서 34개 대학만이 제2외국어 영역 시험 점수를 입시 전형에 반영하였고, 2002학년도에는 2001학년도보다 더 줄어들어 30개 대학에 불과했으며 점수 반영 비율도 매우 낮았다¹⁾. 그 결과 제2외국어를 선택한 수험생수는 2001학년도에 전

1) 제2외국어 영역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의 제2외국어 성적 반영 방법 및 비율은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2002학년도의 경우 제2외국어 점수 총 40점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인천대), 제2외국어 취득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거나(건국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제2외국어 성적을 원점수로 반영하는(한국교원대) 등 반영 방법 및 비율이 매우 형식적이다.

체 수험생의 30.9%에 불과하였고 2002학년도에는 그보다 3% 이상 줄어든 27.8%에 그쳐²⁾ 제2외국어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의 출제 범위가 각 과목 I로 제한되어 있고, I 수준에서 출제에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문법, 표현 등의 매우 제한되어 있어 제2외국어 영역 문제의 수준이 지나치게 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험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이 제2외국어 시험 준비를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1학년도에 제2외국어 영역 수험생 상위 50%의 성적 평균이 94.6점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의 무용론을 야기시킬 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2학년도에는 상위 50% 수험생의 제2외국어 영역 평균 점수를 77.1점으로 하향시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개선하긴 했으나 시험 문제의 수준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그쳐 실제 외국어 능력을 제대로 측정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제대로 제2외국어를 공부하고 그 결과를 공부한 만큼 얻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 영역 시험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제2외국어 과목 간 선택 비율의 불균형

<표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2외국어 과목별 선택 비율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2001년도 통계에 의하면 독일어 23.7%, 프랑스어 14.8%, 스페인어 1.1%, 중국어 8.9%, 일본어 51.5%로 일본어의 선택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 독일어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프랑스어는 비교적 적절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의 선택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과목별 선택 비율의 변화

2)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총 응시자수 850,305명 가운데 제2외국어 영역 응시자는 262,513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30.9%가 응시하였고, 2002학년도에는 총 응시자수 718,441명 가운데 27.8%에 해당하는 199,462명이 응시하였다.

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현상은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다(<표II-2>의 외국어 교사수의 변화에서도 같은 현상을 감지할 수 있음). 다만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서서히 선택 비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선택 비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어는 큰 변화없이 시종일관 매우 저조한 선택률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어의 경우는 배우는 학생 수가 극히 적어 통계 수치로 잡혀있지 않지만 대략 4000명 정도가 배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6차 교육과정부터 러시아어가 제2외국어 교과로 도입된 이후로 러시아어 선택률도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담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제2외국어 과목간 선택률 불균형의 추세는 학습자 중심 선택 교육과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2학년도부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의 선택률이 급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독일어와 프랑스어의 선택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스페인어와 러시아어는 현재의 저조한 선택률 수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수에 비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데 정보화·국제화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인재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탁월한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외국어 인재 양성의 첫걸음은 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어 교육에서 시작되며 이런 의미에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서론에서도 밝힌바 있지만 제2외국어 사용 인구는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이 탁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세계 절반을 주도하는 외국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다.

<표II-1> 제2외국어 과목별 선택 학생수의 변화

명(비율%)

과목 년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1997	587,044(32.4)	323,229(17.8)	19,481(1.1)	93,267(5.1)	790,264(43.6)
1998	477,287(29.6)	289,154(18.0)	18,232(1.1)	93,808(5.8)	731,416(45.4)
1999	397,424(28.8)	242,864(17.6)	16,942(1.2)	95,376(6.9)	625,655(45.4)
2000	332,136(27.0)	208,386(17.0)	13,143(1.1)	92,890(7.6)	581,329(47.3)
2001	255,556(23.7)	159,796(14.8)	11,566(1.1)	95,951(8.9)	555,304(51.5)

<표II-2> 제2외국어 교원수의 변화

과목 년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계
1997	1,277	810	55	256	1,634	4,032
1998	1,282	800	56	283	1,632	4,053
1999	1,257	761	59	305	1,650	4,032
2000	1,180	726	61	326	1,678	3,971
2001	1,115	722	57	354	1,612	3,860

따라서 현재와 같이 외국어 과목간 선택의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도록 제2외국어 선택을 학생에게 무작정 맞기는 것은 올바른 외국어 정책이라 볼 수 없으며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균형있는 외국어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저조한 선택률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어와 스페인어는 다른 과목과의 균형있는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로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로서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러시아는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급속히 확대될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 할 수 있다. 러시아어의 중요성은 이런 의미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스페인어는 영어, 프랑스어와 더불어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뿐만 아니라 브라질을 제외한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남아메리카 지역과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면에 있어서도 그 어

는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어서 스페인어 화자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언어 사용 국가들과 밀접한 교류를 확대해야 할 상황에서 이들 언어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교사들의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

성공적인 교육은 교사, 학생, 교재, 교수법, 교육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하다. 외국어 교육에서는 이 여러 요인 가운데 특히 외국어 교사의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외국어 교사의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은 필수적이며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의 바른 운영과 더불어 교사 연수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항에서는 이 가운데 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교직의 세 분야로 구성된다. 교원 양성 기관에서 이 세 분야를 적절히 배분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해야 능력있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 개선 연구”(1994)에서 우리나라 5개 교사 양성 기관의 영어 교육과, 독일어 교육과, 프랑스어 교육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첫째, 전공과목인 문학, 어학, 교수법 가운데서 문학과 어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교수법 과목보다 지나치게 높아서 외국어문학과의 교육과정과 별 차이가 없다. 독일어 교육과의 예를 들어보면 문학, 어학, 문화, 교수법의 비율이 46:43:6:5로 조사되었다.

둘째, 교양과 교직 과목(교육학)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독일어 교육과의 예를 들어보면 전공 교직, 교양, 일반 선택 과목의 비율이 46:14:28:12로 조사되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진황 외(1994),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89-97을 참조할 것.

셋째,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길러주는데 필요한 회화, 작문 등의 강의는 비교적 많은 비중(45-56%)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교사 양성 기관인 K대학 불어교육과의 교육과정(2002년 기준)⁴⁾을 살펴보면 교양 과목이 21학점, 교직 과목이 15학점, 교과 교육학(교수법) 9학점, 교과 내용학 42학점으로 교과 교육학의 비중은 다소 개선되었으나(10.3%) 교양 및 교직 과목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1.4%). 특히 교과 내용학 그 비중이 가장 크고(48.3%) 과목들을 살펴보면 과목들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고 이들 과목들이 과연 외국어 교사 양성에 반드시 필요한 과목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문법 영역에서 불문법 1, 2, 고급 불문법, 불문법 연습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어학 영역에서 불어학 개론, 불음성학, 불통사론, 불형태론 불문체론, 불어학 특강, 불어의미화용론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불문학 영역에서는 불문학 개론, 불작품선, 불소설강독, 불시개관, 불희곡 강독, 불소설 개관, 17세기, 19세기, 20세기 불문학, 불시 강독, 불작가 연구, 고전주의 연구, 불비평 연구, 불문학 세미나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불어불문학을 전공하는 과와 다를 바 없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예비 외국어 교사들의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외국어 회화 및 작문, 청해 등 언어 교육 시간을 확충하고 외국어 교수법 강의를 이론과 실천으로 구분하여 세분하여 가르쳐야 한다. 예컨대, 외국어 교육과정, 외국어 교수 학습 방법, 외국어 교재 연구, 외국 문화 교육론, 외국어 평가, 외국어 교육의 실제 등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이다. 더불어 해당 언어 사용 외국인을 포함하여 분야별 외국어 교육 전공자를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다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참조함: <http://knuecer.knue.ac.kr/~french/>

III. 외국의 외국어 교육 현황

다음에 제시되는 <표III-1>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외국어 교육의 현황을 제시한 표이다. 표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외국어 과목 수, 외국어 선택 방식, 외국어 교육 시작 시기, 주당 수업시수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비교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1. 외국어 과목 수

가르치는 외국어 과목 수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이 우세하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전통적으로 인문학을 중시하는 나라로서 현대어 뿐만아니라 고전어에 이르기까지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외국어 과목을 설치,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등 중등 수준에 걸쳐 모두 세개의 외국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어의 종류도 유럽어 뿐만아니라 아랍어, 중국어 등 동양어와 고전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도 프랑스보다는 덜 하지만 초, 중등 수준에서 2개의 외국어를 필수로 배우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어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은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어 과목수가 적은 편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영어 사용 국가로서 영어가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어 외국어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외국인과의 의사 소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특히 중등 수준에서 영어 이외의 외국어에는 별로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이들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영어를 필수로 가르치고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재량 활동 시간에 제2외국어 과목(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을 가르칠 수 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영어를 포함해 8개 과목(중학교와 동일)을 편성해 놓고 있어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프랑스 및 독일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

<표III-1> 외국과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 현황

국가명	외국어의 종류	시작 시기	주당 수업시수	비 고
미국*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학교 1학년	3시간	· 외국어는 선택, 탐색 코스의 과목으로 필수 과목은 아님 ·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운 외국어의 심화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음.
영국	유럽어 중심(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중학교 1학년	1.5-3시간	· 고등학교까지 1-2개의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음
프랑스	외국어: 독일어,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초등학교 2학년	1-1.5시간	· 제2외국어는 주로 인문계에 진학하는 학생이 선택함 · 제3외국어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선택함
	제1외국어: 독일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현대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네델란드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학교 1학년	3시간	
	제2외국어: 제1외국어 가운데 선택하지 않은 외국어 혹은 라틴어, 그리스어 제3외국어: 제1외국어와 동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시간 3-4시간	
독일**	제1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네델란드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중학교 1학년	3-4시간	· 학교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도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음
	제2외국어: 제1외국어와 동일	고등학교 1학년	4-5시간	
일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학교 1학년	3-4시간	·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도 선택할 수 있음(최근에는 한국어도 포함시킨다고 함)
우리나라	필수 외국어 : 영어 선택외국어(제2외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 1-2시간 중등 3-4시간 1-2시간	· 중학교수준의 제2외국어교육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거의 교육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교육과정을 참고하였음.

** 독일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와 니이더 작센주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였음.

2. 외국어 선택 방식

표에 제시된 다섯 개 나라의 외국어 선택 방식은 외국어 교육 입문기부터 학생들은 여러 개의 외국어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어 선택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한 한 개의 외국어(영어)를 지정하여 모든 학생에게 필수로 배우도록 하고 나머지 외국어는 제2외국어로 분리하여 선택하도록 하여 필수와 선택 외국어 간의 뚜렷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⁵⁾ 이는 프랑스에서 외국어 과목은 선택하는 시기에 따라 제일 처음 선택해 배우는 외국어를 제1외국어라 부르고 두 번째로 선택하는 외국어를 제2외국어로, 세 번째로 선택하는 외국어를 제3외국어로 부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3. 외국어 교육 시작 시기

교육과정에 초등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뿐이다. 독일의 경우도 학교의 선택에 따라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으며,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사립 초등 학교에서는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중학교부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어 외국어 교육의 시작 시기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할 수 있다.

4. 주당 수업 시수

영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중등 수준에서 외국어 종류나 외국어 학습 시기에 관계없이 대개 주당 3시간 이상의 외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는 초등에서는 1-2시간이나 중등에서는 3-4시간으로 중등의 경우 외국과 같은 수업 시수이다. 그러나 제2외국어 수업 시수는 주당 1-2 시간으로 영어 교육 시간과 많은 차이

5)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4항의 외국어 수업 시수에서 자세히 다루어짐.

가 있다. 학생이 선택한 외국어가 유용성이 있고 없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외국어 자체의 가치를 차별화하여 수업 시수를 다르게 편성한다는 교육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조처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특히 제2외국어 교육)은 양적으로는 선진국에 못지 않은 발전을 했으나(그 시작 시기나 교육되는 외국어 과목 수로 볼 때) 질적인 면에서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수업 시수나 선택권을 주는 면에서 영어와 제2외국어를 차별화하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외국어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IV. 제2외국어 교육의 발전 방안

제2외국어 교육이 현행의 비정상적 궤도에서 벗어나 본래의 교육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안되는 방안들이 외국어 교육 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제2외국어 교육의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발전 방안

첫째, 제2외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 습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외국어 교육 시수에서도 보았듯이 3년간 주당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가르쳐야 기초 의사 소통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현재의 주당 1-2 시간으로는 정상적인 외국어 수업을 하기 어렵다.

둘째, 제2외국어 과목 선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3과목 이상의 외국어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각각의 외국어를 고루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선택율이 낮은 과목, 예컨대,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과목을 설치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제2외국어 선택의 균형을 이루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과 같이 영어는 모든 학생에게 필수, 제2외국어는 여러 과목 가운데 선택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유럽식 모델, 예컨대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를 모두 외국어 과목으로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첫번째로 선택하는 외국어, 두 번째로 선택하는 외국어의 개념으로 외국어 과목 선택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방식이 채택된다면 지금까지 양적인 확대만 이루어졌던 외국어 교육에서 명실공히 질 높은 외국어 교육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2외국어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발전 방안

첫째, 제2외국어 청취력 평가 방법 연구 및 문항 개발과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청취력 평가 실시한다. 청취력은 언어 습득에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며, 다른 기능(말하기, 읽기, 쓰기)을 발전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습득되어야 할 기능이다 현재 극히 일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취력 평가를 모든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면 제2외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멀티 미디어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을 권장한다. Edunet을 활용하여 수업 할 수 있도록 Edunet에 제2외국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탑재하도록 하며, Internet을 통해 해당 외국어 사용 국가에 관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을 유도한다.

셋째, 그룹 지도 및 능력별 지도 등에 의한 지도 방법 개선의 노력을 한다. 외국어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습당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축소되어야 하나 이는 현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학생 규모를 유지하되 그룹 학습이나 능력별 반편성을 통해 지도한다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교육 연구 기관의 역할을 확대한다. 교육 연구 기관에서 제2외국어 교육 관련 활동, 즉 교수·학습 자료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수행되고, 교육 현장과 밀접한 연계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연구 개발된 자료들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그 결과가 feedback되어 연구 개발의 질을 높이고 다시 그 결과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해당 외국어 사용 국가의 학교와 자매 결연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외국 학교의 학생들과 자매 결연을 통해 펜팔, 상호 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흥미를 고취시키도록 한다.

3.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을 통한 발전 방안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 입시 평가에 의해 현장 교육의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의 질이 완벽하게 좌우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 풍토에서는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2외국어 영역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점차적으로 제2외국어 영역의 시험 범위를 현재 제2외국어 I 수준에서 II 수준까지 시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진정한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제2외국어 영역을 포함시킨 것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삶의 도구가 될 외국어 능력 신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중요성을 갖는 과목에 대한 교육 및 평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정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의 경중을 가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야만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 외국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과는 다른 맥락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촉진시키는 다른 한가지 방법으로 대학에서 제2외국어 능력 특기자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영어 위주의 외국어 특기자 선발 방식에서 탈피해 제2외국어 특기자 선발 기회를 확대한다면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의 활성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교사 채용 및 교원 연수 제도 개선을 통한 발전 방안

첫째, 외국어 구사 능력이 탁월한 교사 채용 등 외국어 교사 자질 향상

에 노력을 기울인다. 외국어 교육의 성패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가르치는 교사의 자질과 관련된다. 교사의 외국어 구사 능력의 탁월함과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의 발달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질 높은 교원 교육을 통해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 채용시 외국어 능력(구어, 문어)이 탁월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어 담당 교사의 해외 연수 및 국내 연수에 충실을 기한다. 외국어 담당 교사의 국내 및 해외 연수를 통하여 의사 소통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기하도록 하며 새로운 교수법 이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수업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특히 교사 연수시 교사들에게 실제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천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사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지 강의하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는 안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2외국어 교육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질 높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계획이라 하더라도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또한 외국어 교육 관련자들은 외국어 교육 정책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예컨대 외국어 교육 분야의 다양한 실천적 연구의 수행, 외국어 수업 및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보고 등 정책 수립자와 외국어 교육 당사자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외국어 교육 관계자 간에 그리고 교육 정책 결정자와의 상호 협조와 신뢰 안에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현재 외국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위치에 있는 영어 교육 관계자들이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좌시하지 말고 문

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제2외국어 관계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정책 결정자의 진정한 국제적 시각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영어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 이상은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은 요원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2),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 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8),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선안”, 교육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 통계 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 통계 연보”, 한국교육개발원.
 이근님 외(1997),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이근님, 남명호, 홍후조(1998),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님, 김영준(1999),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출제 지침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용숙 외(1985),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용숙 외(1996), “교육과정 개혁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진황 외(1986), “외국어 교육 방법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진황 외(1989),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방법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진황 외(1994),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Harley, B et al, (1990), *The development of second language proficien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hnson, R.K., (1989),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ddowson H.G.,(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rojet de résolution des problèmes liés à l'enseignement des secondes langues étrangères en Corée

LEE, Kun-Nim

L'objectif de cet article est d'abord de présenter la situation actuelle de l'enseignement/apprentissage de deuxièmes langues étrangères au milieu scolaire en Corée et en proposer la problématique, et puis de présenter le système d'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dans les pays différents et le comparer avec le système coréen pour obtenir quelques suggestions, enfin de donner quelques propositions pour faire évoluer et améliorer l'enseignement des deuxièmes langues étrangères de notre pays.

Pour le premier sujet, j'ai présenté tout d'abord l'expansion externe de l'enseignement de deuxièmes langues étrangères: il y a en ce moment sept langues étrangères différentes enseignées au niveau secondaire tandis qu'au début des années soixantes, il y en a eu deux seulement. J'ai présenté aussi la position dont les langues s'occupent à l'examen national d'entrée à l'université, c'est-à-dire, l'épreuve de deuxièmes langues étrangères n'est pas obligatoire: les élèves qui veulent passer cette épreuve peuvent en choisir une parmi les plusieurs langues étrangères. Il y a aussi une grande différence au taux de choix de chaque langue, qui va poser un problème dans l'avenir de la politique éducative des langues étrangères. Finalement, j'ai présenté l'insuffisance de la compétence de communication des enseignants des langues étrangères en abordant au problème du contenu curriculaire dans les établissements de formation des enseignants des langues étrangères.

Pour le deuxième, la comparaison entre le système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dans les pays étrangers et celui

de la Corée a été fait comme les suivants: combien de langues étrangères enseignées au niveau primaire et secondaire, comment les élèves choisissent une langue étrangère, quand ils commencent à l'apprendre, et combien d'heures par semaine les élèves apprennent une langue étrangère.

Quelques propositions d'après les résultats des études ce qui ont été réalisés au-dessus sont les suivantes: premièrement, au niveau de développement du curriculum, j'ai proposé de disposer trois heures par semaine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de donner aux élèves plus de possibilités de choisir une parmi plus de trois langues étrangères dans le même établissement scolaire, de ne pas distinguer pour le choix des langues entre l'anglais et les autres langues étrangères, deuxièmement, pour améliorer la méthode d'enseignement/apprentissage, j'ai proposé d'une évaluation de la compétence de la compréhension orale des élèves qui n'est pas bien exécutée actuellement dans la classe, d'une exploitation de documents multi-médias aussi souvent que possible, des recherches sur des langues étrangères ect., troisièmement, en ce qui concerne l'examen d'entrée à l'université, l'épreuve des langues étrangères doit être bien enracinée et développée, finalement, pour la formation et le stage des enseignants, il faut avoir un programme systématiquement bien préparé pour former des enseignants compétents.

En conclusion, ce qui sont proposés ici ne seront pas réalisés sans que les concernés des deuxièmes langues étrangères ne fassent toujours tout d'abord un effort pour avoir une relation étroite et surtout continue avec les gens du Ministère et avec les personnes qui s'occupent de l'enseignement de l'anglais, et puis il est aussi nécessaire d'avoir une communication mutuelle de ces concernés.